

다양한 삶을 풍자하고 있는
화가 『보테로』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서양 전통 미술방식을 택하면서도 민족 고유의 전통을 담아내 세계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화가가 보테로다.

보테로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라틴 아메리카 예술을 대표하는 생존 작가다. 그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장되게 부풀어 오른 사람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과 정신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테로는 삽화가로 활동하다가 보고타로 이주해 전위적인 현대 작가들과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서양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떠났지만 미술 교육 과정을 거부하고 미술관에 있는 벨라스케스, 고야, 루벤스, 얀 반 아이크 등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하고 탐구하는 것으로 보냈다.

스페인에서의 경험으로 보테로는 후에 미술의 전통을 패러디하거나 이미지를 차용하는 작품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보테로가 서양 미술의 걸작을 패러디한 대표적인 작품이 <루벤스와 이사벨라 브란트>다.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루벤스의 원작에서 루벤스와 이사벨라는 값비싼 옷과 보석, 칼, 고급 신발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 이사벨라의 목을 감싸고 있는 레이스는 고급 옷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던 소재

로 귀족 가문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녀의 손에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보석 반지와 팔찌는 변하지 않은 영원성을 상징하며 칼과 신발은 왕의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물건으로 루벤스의 당당함과 오만함이 엿보이고 있다.

루벤스의 젊은 날의 야망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원작과 달리 보테로는 원작의 상징성을 존중해 원작의 의상이나 배경 그리고 장식품들을 그대로 그렸지만 인물과 사물의 외형적인 모습을 변형시켰다. 또한 보테로는 자신만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눈과 코 그리고 작은 입으로 인물들을 묘사해 원작에서 강조했던 인물들의 개성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루벤스와 이사벨라 브란트>-2005년, 캔버스에 유채, 205*173, 작가 소장

보테로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원작의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걸작을 재탄생시켰다.

보테르는 거장들의 작품만 연구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의 뿌리는 라틴 문화다. 라틴 문화 속에서 성장한 보테로는 자신의 삶에서 예술적 영감을 찾았다. 보테로는 라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라틴 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춤과 서커스, 투우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라틴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냈다.

보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라틴 문화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춤추는 사람들>이다. 라틴 문화하면 먼저 춤을 떠올릴 만큼 춤은 라틴을 대표하는 문화 요소다. 유럽의 춤 문화와 아프리카 원주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라틴 댄스는 남미 인디언 문화와 결합하면서 탄생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춤에 빠져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빠른 춤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다. 바닥에 흐트러진 술병과 담배꽂초는 남자와 여자가 오랫동안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작품에서 노출이 심한 빨간색 드레스와 빨간색 매니큐어 그리고 드레스의 리본은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과 배경의 색색의 전구와 장미 무늬의 커튼 또한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보테로의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 작품 역시 풍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인물들은 통해 군국주의자들이나 권력자, 부르주아 계급의 생활을 풍자하고 있다. 또한 보테로는 현란한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남미의 대중 민속 미술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페르난도 보테르<1932~>는 전통 예술을 지켜나가면서도 현대적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인체의 비율을 실험하거나 인체의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인체를 터질듯하게 부풀렸다. 이러한 인물들은 뚱뚱한 사람들로 불리지만 보테로는 풍자와 비판을 독창적으로 담아내면서 세계 미술계에 두각을 나타낸다.



<춤을 추는 사람들>-2000년, 캔버스에 유채, 185*122, 작가 소장